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택시업자 2년간 묵인

광주시 감사위, 교통건설국 감사서 부적절 12건 적발 시 위원회 상당수 심의 남발 등 부실 운영… 제구실 못해

광주시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택시운송 업자들의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파악했으 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년여간 묵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가 설치한 수많은 위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교통 건설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148건의 택 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의심자를 찾 아냈다. 의심거래 시스템 자동추출 시스템 에 따라 찾아낸 1일 2시간 이내 80 ℓ 초과 충전한 개인·법인택시가 대상이다. 광주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14년에는 90곳을 찾아내 부정수급행위를 조사, 지급정지·경고·주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 파악한 각각 100건, 48 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교통건설국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 행정행위 12건을 적발해 시정 8건, 주의 2건, 개선 2건, 훈계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상당수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는 등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17 년 위원회 컨설팅 감사결과 서면심의 남발, 규정 미준수 등 부적정한 사례 6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A위원회는 긴급히 필요하거나 안건 내용이 경미할 때 하는 서면심의 규정을 어기고 최근 2년에 걸쳐 8차례나 서면심의를 남발했다. 광주시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3개 폐지, 11개 통폐합 등을 추진했으나 폐지 2개, 비상설화 1개 등에 그쳤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 중인 위원회수는 본청 130개를 비롯해 5개 자치구가 404개 등 모두 534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광주시립미술관도 테니스장 관리권을 특정 동호회에 맡기는 등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9건이 적

발돼 시정 6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의 조 처가 내려졌다.

또 감사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사무센터 컨설팅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민간위탁사무센터 9곳의 부적절 행정행위 10건에 대해 시정(5건) 주의(4건) 개선(1건) 조치했다.

감사결과 A지원센터는 광주시 승인없 이 업무추진비를 운영비로 전용했으며, B 지원센터는 내부결재 없이 보조사업을 확 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기록관)이 단순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예산을 낭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여성재단 항명사태 감사

광주여성재단 일부 직원이 허위로 출 장비를 타내고 항명을 하는 등 내분을 겪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여성재단 A 사무총장이 지난 7월 한국여성정책연 구원에서 열렸던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출장신청서를 냈지만 참석하지 않고 재단 대표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은 또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출장비 13만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재단 측은 인 사위원회 징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전 경영지원실장은 이를 누락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감사 에 착수했고, 광주시의회도 이날 여성재 단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들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한 책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 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여성재단이 재 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내부 분란만 계속한다면 출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 해 재단 존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사드 뚫고 中 자매도시 9곳과 교류회의

24일~27일 전남 일원서

전남도는 사드 여파를 뚫고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중국 9개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교류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9개 지방정부 대표단은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산둥(山東)성, 쓰촨(四川)성, 푸젠(福建)성, 산시(山西)성, 지린(吉林)성, 충칭(重慶)시, 톈진(天津)시 부주임급 공무원 20여명이다.

교류회의는 24일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나흘간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다. 환영만찬에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 이 권한대행의 환영사, 중국 저장성 천안(陳安) 부주임의 중국 참가자 대

표 답사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 외에도 쑨시엔위 주광 주중국총영사, 문행주 전남도의원, 중 국 전문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박상철 호남대 부 총장의 기조강연(지방정부 외교의 중요 성과 나아갈 길)과 신정호 목포대 교수 의 주제발표(전남-중국 우호교류 전통 과 미래협력 플랫폼), 교류·협력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이 진행, 서로의 정보 를 공유한다.

이들은 전남도농업박물관, 순천만국 가정원, 순천 낙안읍성 등을 관람하고, 쌀강정 만들기와 한복 입기 등을 체험한 다. 특히 26일에는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식에 참석, 농도 전남의 발전된 농업상 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찾은 국감 의원들

2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광주시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과학관을 찾았다.

SOC 호남 홀대·AI 방역 대책 최대 쟁점

전남도 · 전남경찰청 오늘부터 국감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가 24일 열린다.

전남도 국감은 사회간접자본(SOC) 호남 홀대와 AI 방역 대책, 청렴도 개선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을 반장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감사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진 의원과 김영진·김영춘·백재현·소병훈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유민봉·이명수의원, 국민의당권은희·이용호의원, 바른정당 황영철의원 등 11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감에 앞서 전남도에 30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무안공항 관련 자료 등 건설·교통분야 24건, 한미FTA와 쌀산업·A1발생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4건, F1 관련 등 일자리·경제분야 11건 등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등 복지분야 17건, 지방채 발행과 지방공기업평가등 예산·회계·재정분야 37건, 공무원징계와 정규직 전환 등 인사·조직·감사 분야52건 등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SOC예 산 축소에 따른 '호남홀대론'이 뜨거운 감 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철새 도 래와 AI항원 검출에 따른 AI 대책, 전남 의 아킬레스건인 청렴도 전국 꼴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산하 위원회 상당수가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재정비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남지방경찰 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11일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이 쟁점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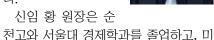
전남경찰청은 강성복 청장의 지휘 아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치안을 맡았던 현장 경찰관의 증언과 비공개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내 타기관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찰기록 및 역사적 사실 등이 왜곡·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섬지역 치안, 목포 6세 아동 학대 사건, 10대 여성 청소년 성매매 증가 등 주요 강력사건에 대한 예방책 등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견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생물진흥원장 황재연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6대 원장에 황재연 전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쌍용양회공업㈜, 외교통상부, 아주대 등 민간기업과 중앙부처, 대학에서 다양 한 경력을 쌓았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으로 9년간 재임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전남도의 중장기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전략산

업 육성에 기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구 옛 보훈병원 일대 전국 최대 청년주택 500호 건립

문재인정부 청년정책 시동 '노후 청사 개발사업' 선정

문재인 정부의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정책이 광주 남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서 남구의 관문이자 구도심 지역인 옛 보훈병원 일대에 전국최대 규모로 청년주택 500호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및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도 대거 확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옛 보훈병원 일대가 광주지역 청년들을 위한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옛 보훈병원 일대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해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은 문 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층 주거안 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 보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주 택 및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건 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가 노후 공공청사 복 합개발 후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청 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 및 운영까지 도맡는 방식이어서 남구는 막 대한 예산 투입 없이 청년 주택 및 공공 청사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대거 확충 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옛 보훈병원 일대 2 만7000㎡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인 청 년주택 500호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 을 위한 사무실과 연구실, 작업실, 교류 공간인 카페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방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곳 일대에 공공청사도 건립해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방 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향충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급, 현재正형업表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현재 구성의 포함인 등에 유유향충료는 여행상품 가격포함내 형고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보고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보고 전체 환경을 통해 따라 변동 가능한 되는 『자네마스에 프라 변동 가능한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현지에 다고 생각하는 하는 모든 불포함할 된 중시에 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에 www.hanatour.com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방랍니다, ■부득이는 부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용에 되는 이 바람관광에 참소하다 자유롭게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생태한다라 보생을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어들이는 없습니다. ● 자리에 가장 사용을 일정표 및 홈페이지에 waw에 사용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방랍니다. ■부득이는 부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위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점수 Tel 1577~1233(ARS 인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활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Ⅰ ●여행 유의 ●여행 자계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